

# “지역 기업, 세제 혜택 누릴 방법 적극 찾겠습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토박이 경영인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과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최근 만난 신임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의 포부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상의 제5대 회장에 선출됐다. 창원상의는 2011년 11월 옛 창원·마산·진해상의를 통합하면서 현재 22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규모로는 전국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최 회장은 경남상공회의소협회 회장까지 당연직으로 맡으며 경남 상공계 큰형 역할을 하게 됐다.

최 회장은 창원 경제 상황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창원시 무역수지 흑자역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방산·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구조 고도화가 시작되고, 마산해안신도시가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회복세와 산업 인프라 확장에도 10년 뒤의 창원 경제를 확실할 수 없다”면서 “지역경제의 미래인 청년 인구가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어 비수도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



창원상공회의소 제5대 회장에 선출된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이 최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창원상공회의소 제공

## 5대 회장 취임 경남 상공계 건인 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앞장

### 회원 애로 타개 전담팀 추진 우주항공청 설치 등 현안 집중

지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등 지역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 애로 타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그는 취임 직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최근엔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의과대학 설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지속적인 지역 공헌 활동도

약속했다. 회원 기업이 부담 없이 사회 공헌에 참여하도록 유도에 모두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헌신과 봉사의 낮은 자세로 지역 사회를 돌아보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그동안 부울경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하나 된 목소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에 대해 부울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kdh@busan.com

## (주)대성문, 부산 남구 우암제일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부산의 중견 건설사인 (주)대성문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 내부 누수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부산 남구 우암제일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외부 방수공사, 장외 교체, 도배와 내장공사를 지원했다.

최근 대성문은 설날을 앞두고 부산 남구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쌀(백미 10kg, 170포)을 남구청을 통해 전달했다. 대성문 재창조 대표이사는 “설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가 궁금했다”며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남구청을 통해 사랑의 쌀로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후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잘 살피는 기업 문화로 선도해나가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강성할 기자 shgang@

## 부산시교육청, 부산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546만 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운수)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회장 최금식)에 성금 546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하운수 부산시교육감, 최금식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시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지난 희망2024나눔캠페인 기간 마련됐다. 모인 성금은 부산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운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해에 이어 직원들과 함께 이웃돕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에 함께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 교육청도 나눔문화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의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금식 회장은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의 생계비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장학금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마음을 전해준 시교육청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강성할 기자



## 기장군노인복지관 후원물품

기장군도서관(이사장 김운재) 기장군노인복지관(분관)은 최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설 명절 나눔 행사 ‘우리의 라면이 사랑이라면’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강성할 기자



## 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 초록우산 부산본부 통해 전달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난 13일 부산의료원에서 초록우산과 함께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지원 사업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 내 소아전용 진료구역 확충, 이송 미니버스 지원, 시설 개선 등 소아청소년들이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은행은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통해 3억 원을 지원한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소아 환자 응급의료 지원으로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의료 지원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김동주 기자 niceid@

## 국립부경대 ‘지역특화무역전문가 양성’ 연합 집체교육

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는 최근 환경해양관 대회의실에서 ‘지역특화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대학 연합 집체교육을 진행했다.

국립부경대 GTEP 사업단(단장 안태건)이 주관해 이번 사업의 첫 행사로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국립부경대와 인제대 등 2개 대학 학생 80여 명이 참여했다.

사업단은 무역이론과 현장실무를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및 해상 보험 교육을 실시하고, GTEP의 이론과 실습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GTEP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계 요구에 맞춘 해외 지역특화 무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립부경대는 올해 GTEP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산·관·학 융합형 무역실무와 현장실습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케팅·전자상거래 이론, 수출입 시뮬레이션 등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5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도 마련했다. 김성훈 기자 neat@

##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변호사, 대한민국 청렴대상

부산지역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변호사가 최근 서울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시민운동연합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 부문 대상을 받았다.

청렴대상을 받은 이혜영 변호사는 노사분쟁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선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변호사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8년째 활동하며 급속노조의 근거지인 경남 창원시에서 노동분쟁 중재자 역할을 했다. 강성할 기자

## 부고

△최영화 씨 15일 별세, 정정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씨 부인, 빈소 통영서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9일 오전 6시 50분. 장지 통영시추모공원(용인선

영). 010-9611-6420. △김막업 씨 15일 별세, 강석주(전 통영시장) 씨 모친, 빈소 통영고려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통영시추모공원. 055-643-4444.

## 오늘의 운세 (음 1월 7일)

96년생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84년생 정성을 들이는데 비해 효과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듯. 72년생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60년생 지금까지 뛰어 온 기반이 확실하게 다져진다. 48년생 새로 **금전** ○ 온 일에 손을 대면 좋지 않으니. **애정** ○ 36년생 억지로 일을 이루려면 복 **건강** △ 잡해지니 주변 변동 마다.

97년생 사람을 사랑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져라. 85년생 믿었던 사람이 방해꾼일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 유지. 73년생 원하는 대로 행하는 데 막힘이 없다. 61년생 힘을 내서 활동하면 성과가 좋은 날. 49년생 잘 배울 **금전** ○ 어 주면 아랫사람도 잘 따를 듯. **애정** △ 37년생 과식을 삼가고 바깥에서 **건강** ○ 먹는 음식에 주의해야.

98년생 민첩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대응하면 무탈한 하루. 86년생 약간의 지출은 감수하더라도 목표는 성취되는 모양. 74년생 승산 없는 일에는 나서지 말아야. 62년생 지금 중심을 잃어선 안 된다. 50년생 심사숙고하여 움직인다면 실보다 득이 많은 하루. 38 **금전** △ 년생 자신의 마음만으로 세상사 **애정** ○ 보기가 어렵다. **건강** ○

99년생 눈에 보이는 실익은 없더라도 실력을 인정받는데 의미. 87년생 자신이 세워 놓은 도달점까지는 좀 더 노력을. 75년생 작은 일에 고집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63년생 내 주장만 내세우다 남매 보기 쉬우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51년생 **금전** ○ 도움을 주면 배의 대기가 오니. 3 **애정** ○ 9년생 주변을 산책하며 충분한 휴 **건강** ○ 식을

00년생 모처럼의 기회를 유혹적 절하게 사용해야. 88년생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피곤한 것도 내색하지 않는 모양. 76년생 큰일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우니. 64년생 직접 주도하기보다 대리인을 내세우면 좋을 듯. 52년생 **금전** △ 순간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 **애정** ○ 겨야. 40년생 전반적으로 기운이 **건강** △ 소진되니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01년생 새로운 정보 수집과 지식에 힘써야. 89년생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77년생 서로 상생하려는 원원 작전이 필요하다. 65년생 견제함을 과시하는 일이 생기기도. 53년생 소모적인 일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 41년생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듯. **건강** ○ 을 듯.

02년생 의리나 신용이 없으면 신임을 잃을 수도. 90년생 원행 시에 차량 조심. 방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점검을. 78년생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66년생 행동이나 결정할 사안에 중도 포기하지. 54년생 허심탄회하게 **금전** ○ 다 털어놓으면 수월하게 해결될 **애정** △ 듯. 42년생 주변 사람의 관심과 **건강** ○ 보호를 받게 되기도.

03년생 자기 계획에는 끝이 없으니 자기 충전의 시간으로. 91년생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 79년생 잘난 척하면 수고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중할 것. 67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55년생 외출 뒤 **금전** ○ 에 약간의 피로와 육체적인 손모 **애정** ○ 가. 43년생 불안정할 때일수록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야.

04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니 낙심하지 말아야. 92년생 부딪치면 해결이 빠르다. 두려움을 버려라. 80년생 양손에 떡을 쥐더라도 하나는 남의 떡. 68년생 정당한 순서를 거친 뒤 결과를 기다려야. 56년생 신분 **금전** ○ 과 명예가 오르면 풍위를 지켜야. **애정** ○ 44년생 무엇보다 안전하게 처신 **건강** △ 힘이 좋을 듯.

05년생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입가에 웃음이. 93년생 가던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혼동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81년생 지지부진한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69년생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 일로 애슬 일이. 57년생 **금전** △ 생 서두르면 그르치니 바쁠수록 **애정** △ 돌아가라. 45년생 흥겨운 상황 **건강** ○ 이 오히려 더 변할 수도.

94년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82년생 역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니. 70년생 자존심을 감춰두고 대인관계를 가질 때 이득이 생기니. 58년생 손님이 찾아와 나의 지출이 많아질 수도. 46년생 **금전** △ 아랫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끌어줄 **애정** ○ 일이 생길 수도. 34년생 체면을 지키면서 실속도 챙기는 하루.

95년생 발전이 있는 하루. 포기하기엔 이르다. 83년생 옳다고 생각하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71년생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59년생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채로 일을 진행하는 양상. 47년생 배우자의 신수나 건강을 챙겨보아야. 35년생 하고 **애정** △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으니 그냥 **건강** ○ 속에 담아두는 것도.

◎-대길 ○-길 △-평범 ×-홍 ※ 띠는 음력 기준입니다

박정화 철학원 051-863-8306